

## 미국 동아시아도서관 협의회(CEAL) 연차총회에 다녀와서

김도미\_한국도서관협회 국제·자료팀장

JA4DK@yahoo.co.kr

IFLA2006서울대회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국내외 홍보 및 대회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2004년을 맞이하여 첫 번째 홍보활동으로 3월 2일부터 6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미국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 연차총회(the Annual Meeting for the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에서 IFLA2006서울대회를 소개하고 홍보함으로써 그들의 참석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하기 위해 한상완 부회장과 함께 참석하였다.

CEAL에 대해서는 워싱턴대학의 한국학 사서이며 CEAL의 한국학 자료분과위원장인 이효경선생이 《도서관문화》 2004년 3월호에서 소개한 바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의 아시아학회(Association of Asian Studies)의 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CEAL은 한·중·일 동양서를 다루는 사서들의 가장 큰 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

IFLA2006서울대회는 아시아에서 열리는 대회이니 만큼 미국과 캐나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아시아 주제 전문가 사서들의 관심과 참석 가능성도 높으리라는 전제로 이번 방문이 이루어졌다.



〈IFLA2006서울대회를 홍보하고 있는 한상완 부회장〉

샌디에고의 'Garden Salon'에서 열린 총회와 각 분과 세미나에는 총 250여 명 정도가 참석하였다. 총회식 전에 우리 협회에서 국외홍보용으로 제작한 17쪽 분량의 IFLA2006서울대회 영문 홍보책자와 작은 기념품을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참석자들은 뜻밖의 선물에 들떠 하며 홍보책자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상완 부회장과 같이 열심히 대회홍보도 하고 명함도 주고 받으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가 시작되고 프로그램 중간에 '제72차 IFLA2006서울대회의 개최진행 상황 보고'라는 제목으로 약 20분 동안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장소 및 호텔에 대한 회의 정보를 비롯해 대회 도시인 서울시도 소개하였다. 아울러 대회기간 동안의 문화행사 및 서울근교 관광정보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3월 4일 열린 CEAL내 한국학자료분과위원회(Committee on Korean Materials Program)에서는 한상완 부회장이 '대한민국 도서관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한상완 부회장은 연설을 통해 'IFLA2006서울대회'의 의의를 설명하며 주미, 주캐나다 한국사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고 지지를



〈'IFLA2006서울대회 개최 진행 상황 보고'에 대한 발표를  
경청하고 있는 참석자들〉

부탁하였다. 아울러 CEAL과 한국도서관협회의 교류의 활성화 및 협력방안 모색에 대하여도 발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대표로 참석한 이재선 사서는 해외에서 한국 서지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계획에 관해 발표하였고, 국립국어연구원의 학예연구관인 정희원 박사도 새로 제정된 한글의 로마자 번자에 대해 발표하여 많은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다.

CEAL의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녁식사를 하며 서로를 소개하고 교류를 나누는 자리인 'Fellowship Dinner'가 4일 밤에 열렸다. 그 자리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나라의 분과 위원장들이 해외에서 참석한 자국관련 참석자들을 소개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짐작할 수 있듯이 본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외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한 것에 비해 한국 측에서는 우리 협회측 두사람,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재선 사서와 국립국어연구원 정희원 박사 그리고 한국에서 온 업체의 직원 두 세명 정도여서 상대적으로 두 나라에 비해 열세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해외에서 열리는 세미나 학회에 보다 많은 국내의 도서관들, 도서관인 그리고 문헌정보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도서관계의 현황이나 흐름, 그리고 관심사 등을 파악하여 배우고 느끼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절실한 순간이었다. 식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관계자들과 개별적인 소개와 인사를 통해 "IFLA2006서울대회"를 홍보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에 참석한 많은 도서관인들로부터 2006년도 IFLA에 꼭 참석하겠다는 말을 들은 이번 CEAL 방문은 많은 홍보와 이해를 얻은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CEAL과 우리나라 학계 그리고 도서관계가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북미주에서 한국학의 발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종의 학문의 사절단들인 한국학 도서관 사서들이 더욱 활기차게 봉사할 수 있도록 모국에서 깊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우리 협회는 재미 한국사서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일정기간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시키는 등 관계기관(예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제교류재단 등)과의 연계를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다.

\* 한상완 부회장과 김도미 팀장의 발표문은 본지 2004년 3월호 78~85쪽에 게재하였음.